

Victorian & Edwardian 의상 스타일 비교 연구

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과 이재정

· 목 차 ·

- I. 서론
- II. 빅토리언 시대적 배경과 사회 문화적 요인
- III. 빅토리언 의상 스타일의 변천
- IV. 에드워드인 Edwardian 1900-1914
- V. 에드워드인 복식
- VI. 결론 및 요약

<요 약>

산업 혁명이 완성되고 디자인 운동이 일어난 시기와 맞물린 당시 영국의 사회 문화적 현상을 파악하고 서로 연관성과 차별성을 공유하고 있는 빅토리언과 에드워드인 스타일을 비교 분석하고 그 시대적 배경과 양식적 특성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국내에서 불분명하게 사용되고 있는 두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양시대의 조형의식에 영향을 미친 사회 문화적 요인을 규명하고 이분법적인 성별체계와 군주의 캐릭터를 파악한다. 이어 이들 의미와 연관되어 외적 형식으로 나타난 복식의 체계와 조형 특성을 남 여성복을 통해 나누어 고찰하며 양시대의 동질적 요소와 이질적 요소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양 시대는 비록 그 캐릭터는 다름지언정 군주의 사적 기호에 맞추어 규격화된 시대였으며 이들은 당시 패션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빅토리언은 이분법적 여성성과 관련된 여성 외모 중시 경향으로 여성복의 다양한 스타일 개발이 이루어지고 구조적으로 형태적으로 많은 변화를 보였으나 남성복 착장은 이전 세대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에드워드인 시대에 이르러 남성복은 스포츠룩, 테일러 메이드의 완성과 함께 근대 남성복 스타일과 제조방식의 체계가 확립되는 국면을 맞이한다.

빅토리언이 관능과 접근 금지, 확장과 종속, 모성과 유혹이라는 이중적 코드를 지닌 여성성을 은유하는 여성복의 시대였다면 에드워드인은 가부장적 남성주도의 지배문화가 엄격한 신사도로 승화된 남성성

을 은유하는 남성복의 시대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이는 두 군주의 패션리더적 역할과 무관하지 않다.

I. 서론

1. 연구 목적

뉴 밀레니엄 시대가 도래 한 지금 패션을 필두로 인테리어, 공예, 시각 조형물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관심이 과거에 쏠려있다. 뉴밀레니엄으로 접어들면서 주거용이나 상업용으로 주류를 이루었던 매끄럽고 신소재 느낌이 강한 모던 가구들이 유럽 안티의 모조품으로 대체되어 가며 의상분야에서는 90년대 풍미했던 미니멀리즘에 대한 보상이라도 하듯 지역주의와 복고주의를 반영한 색상과 디테일이 주요 장식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이전 시대의 것이라도 새로운 정황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의미가 중요하므로 장식과 꾸밈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포스트 모던의 거대 담론으로 풀어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생존경쟁과 외부환경이 날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져 가는 상황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보금자리와 자신과 가장 밀착된 물체인 의상에서 만은 따스함과 안온함을 찾고자하는 일종의 코쿠닝(Cocooning)의식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패션과 섬유 소재를 다루는 홈퍼니싱, 홈인테리어 분야에서는 빅토리언 에드워드언에 관한 흥미가 단연 두드러진다. 더욱이 당시의 조형 특성과 세부 장식들이 현재의 시대정신과 맞물려 재해석되어 새로운 조형 언어로 탄생하는 경우는 너무도 흔히 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기적으로 볼 때 산업 혁명이 완성되고 영국의 디자인 운동이 일어난 시기와 맞물린 당시의 영국 스타일의 내용을 파악하고, 특히 서로 연관성과 차별성을 공유하고 있는 빅토리언과 에드워드언 스타일을 비교 분석하여 그 시대적 배경과 양식적 특성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국내에서 불분명하게 사용되고 있는 두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먼저 현대 패션의 근저를 이루는 이 두 스타일을 비교 분석하고 전술한 연구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빅토리언과 에드워드언 스타일에 공통적으로 또는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지배논리는 무엇인가?

1. 성별체계
2. 패션리더로서의 군주의 역할

둘째, 빅토리언과 에드워드언 스타일의 복식체계와 조형적 특성은 무엇인가?

1. 빅토리언 복식의 변천과 조형 특성
2. 에드워드언 복식의 특성

셋째, 빅토리아와 에드워드인 스타일의 차별적 요소는 어떻게 요약될 수 있는가?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기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 신간 서적과 선행 논문을 중심으로 한 관련 문헌 자료를 통해 사적 문헌적 연구를 행하였으며 연구의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양 시대의 조형 의식에 영향을 미친 사회 문화적 요인을 규명하고 이분법 적인 성별 체계와 군주의 캐릭터를 파악한다. 이어 이들 의미와 연관되어 외적형식으로 나타난 복식의 체계와 조형 특성을 낚, 여성복을 통해 나누어 고찰하며 마지막으로 양시대의 동질적 요소와 이질적 요소를 비교 분석한다.

단 국내 학계에서 통일되어 있지 않은 전문 복식 용어 표기는 첫 제시 부분에서 원어 표기를 우선하되 토를 다는 경우에는 영어식 또는 불어식 발음법 중 보다 일반적인 경우를 고려하여 표기하였다.

II. 빅토리아 시대적 배경과 시인 문헌적 요인

1. 빅토리아 여왕과 그 시대적 배경

1839년 갈색 머리에 창백한 피부의 어린 소녀가 영국 여왕으로 즉위했다. 그녀의 스타일 감각과 도덕성은 참신했고 어느 정도 혁신적이기까지 했는데 온 나라의 여성들은 너도나도 그녀를 본받아 따라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성장해가면서 서구의 여성들은 소녀스런 드레스에서 보다 무겁고 성숙한 패션 - 입고 팔짝거리기보다는 우아하게 걸어야 할 것 같은 테일러드 의상을 입으며 그녀와 함께 나이를 먹어 가는 것 같았다.

여왕이 근엄한 앨버트 공과 결혼하게 되자 그녀는 가정적인 미덕을 배웠으며 궁정은 엄숙하면서도 가족적인 분위기를 풍기게 되었다. 영국인들은 궁정의 가족생활이 자신들의 가족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궁정생활을 가족생활의 모범으로 여기고 따르게 되었다. 왕실의 가족으로 상징화된 가족 중심성은 부르주아 계급에서 구체화되어 노동계급까지 확산된 이데올로기였다.¹⁾

그녀의 재위 기간은 1901년까지 60여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그동안 영국의 정치, 사회 문화 뿐 아니라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영국 영향권의 모든 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1) Kristina Harris. Victorian & Edwardian Fashions for Woman. schiffer Publishing Ltd. PA, 1995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한 직후인 1840년대는 대내외적으로 혁신과 대변혁이 이어진 이례적인 시기였다. 철도가 놓여지고 1848년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다.

이 시기에는 무한한 성장과 이성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어왔던 18세기 계몽주의 철학 속에서 확고한 이념적 내용을 갖추게 된 모더니티가 산업주의를 근간으로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의학적 영역에 걸쳐 근본적이고도 광범위한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1850년대 초부터 1870년대까지 지속된 경제호황과 자유무역에 힘입어 영국 경제의 세계적 지배권은 더욱 확장되고 대규모 공업 및 도시지구를 형성케 했다. 활기찬 공업의 발달은 중공업과 경공업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범위의 생산품을 바탕으로 세계 무역 전체를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빈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진보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며 그들은 과학에 대해 신앙심에 가까운 동경을 바쳤다.

2. 빅토리언의 사회 문화적 특성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은 근엄하고 체면을 중시했던 사회로 자아라는 것이 타고나기보다는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했던 시기였다. 따라서 국가는 건전한 시민과 정치적, 산업적, 사상적 엘리트를 길러낼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산업 역군인 부르주아 계급의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당시 막강한 경제력을 토대로 사회 권력을 쥐게 된 부르주아는 당시 최고의 가치를 관장하는 계급으로 부상하였다. 이들은 대다수가 적극적인 프로테스탄트 출신으로 당시 번성했던 청교도적 이데올로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 따라서 이들이 표방하는 이념은 청교도적인 근엄성과 엄격한 도덕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표면적으로 대중에게 존경받을 만한 예절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했다. 이러한 성향은 당시 사회에 영향을 미쳐 ‘도덕적 위선의 절대 지배’는 빅토리아 시대의 사회 분위기를 특징짓는 문구가 되었다.³⁾

청교도적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는 부르주아 문화는 자본주의의 요구를 조직적으로 관철하려는 방향으로 형성됨으로서 되도록 모든 면에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것을 추구했다. 인간과 인간의 모든 관계가 새롭게 통제되었고 모든 것이 의지와 두뇌의 냉정한 확신에 의해 지배, 조절되었다. 경쟁, 효율, 체통, 목적의식이 소중히 여겨졌으며 정당하게 취득한 돈, 성취, 성공이 존중되었다.

이어 자본주의의 비약적인 발전에 상응하는 새로운 노동 윤리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배적인 계급의 육체에 관심을 기울였다. 즉 절대주의 시대 귀족이 자신들의 ‘푸른피’ 즉 혈통을 통해 자기 육체의 특수성을 단언했다면 부르주아가 중심이 된 빅토리언 지배계급들은 나름대로의 차

2) Michele Barret 외 “Feminism and class Politics” 신현옥의 역 “페미니즘과 계급정치학” 서울: 여경사, 1995, p.120

3) 김정선, 빅토리아시대 유행복식과 반유행복식운동에 나타난 여성성과 인체미에 관한연구.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p.11

별화된 육체를 갖추기 위해 자손과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관심을 돌렸다. 그들은 귀족의 푸른피를 튼튼한 신체와 건전한 성적 욕망으로 전환시켰으며 이는 생물학적, 의학적, 우생학적 교훈의 형태로 표현되었다. 이에 관한 방편으로서 성적 욕망에 대한 법적 도덕적 장치가 일반화되는데 따라서 성적 욕망은 합법적인 부부사이에 한정되었고 가족의 도덕적 이상을 바탕으로 한 일부일처제가 옹호되었다.⁴⁾

빅토리아 시대에는 산업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모더니티의 시작과 더불어 남성-여성, 이성-감정, 문화-자연, 부모, 의식-무의식과 같은 이분법 체계가 재규명 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산업혁명과 과학혁명을 배경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던 산업주의는 자연을 극복하고 문화적으로 이성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여성의 속성으로 간주되는 비이성적인 전통을 배제할 필요가 있었다. 남성은 문화적으로 획득된 이성주의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자율적인 주체로 활동하기 위해 지배하는 남성성(dominant masculinity)이라는 이데올로기가 강화되며 이는 자아조절과 노동, 독립을 강조하는 당시 남성성의 신조는 사회적 담론들에 의해 정교화 되고 보급되었다. 특히 남성성을 검증하는 필수자질로서 가장으로서 가족이 살 집을 짓는 일,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직업 그리고 사회적 정체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교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당대의 남성성은 교훈적인 우수한 문화형태로서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절대주의 시대 유희로서의 남성성과 구별되는 금욕으로서의 남성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⁵⁾

반면 여성에게는 감성, 부드러움, 민감함, 따뜻함, 수줍음, 연약함, 수동성, 종속성이 덕목으로 주어졌다. 여성의 신체가 주기적으로 배란을 한다는 생물학적인 발견은 본질적으로 여성을 그 자신의 신체에 종속시키는 사회적 인식을 강화시켰다. 여성의 생식체계와 출산이 여성성의 본질로 간주됨으로서 자녀 양육과 함께 모성개념이 여성성에 대한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일부분으로 강화되었다. 빅토리아 시대 여성성의 핵심 범주로서 모성은 여성의 삶이 생물학적 조건에 의해 운명 지워진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여성이 문화보다는 자연에 더 가까운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으며 이는 다양한 메카니즘을 통해 여성의 성역할을 미화시키고 정당화시켰다.

따라서 여성성은 정치, 경제의 남성 영역과는 완전히 분리된 심리적 관능적 정서적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은 오직 여성성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졌고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사회에 대한 여성의 첫 번째 의무임을 확신했다.⁶⁾

4) Michele Barret 외 "Feminism and class Politics" 신현옥외 역 "페미니즘과 계급정치학". 서울: 여경사, 1995, p.120

5) Hilier, Beris. The Style pp.41-42

6) 김정선, 빅토리아시대 유행복식과 반유행 복식운동에 나타난 여성성과 인체미에 관한 연구. pp.18-22

III. 빅토리안 인상 스타일의 변천

1. 여성복

1) 1840-1850

페티코우트와 보닛(petticoat, bonnet)

역동적인 산업주의와 놀라운 경제적 진보 가운데서 여성의 역할은 없었고 대다수의 여성들은 주어진 상황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여성에게 있어서 압전함이 최고의 덕목이었다. 땅에 닿도록 내려 입은 스커트 안에 납작한 슬리퍼를 신은 작은 발을 어뚫어내 보이듯 걷는 얌전한 모습이 여성들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당시 소설가 대커레이(Thackeray)는 여성의 발목을 언급하는데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깊게 파인 앞가슴 라인(decollete)을 드러낸 채 저녁 외출을 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었고 어느 시대보다도 은폐(cover up)이 강조된 시기였다. 앞으로 챙을 내민 보닛(poke bonnet)은 여성들을 정면으로 보기 전에는 얼굴을 대하기 힘들게 했다.

1840년 초기 당시 여성들 사이에서 승마기사를 돌 흠모해서 모든 패션 잡지에서는 승마복을 두루 다루었다. 실질적으로 승마를 제대로 하려면 하체와 팔다리가 기능적이어야 하나 남성적인 의복 모습은 허리위 상의에만 국한되고 그 아래로는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당시 관념으로는 여성들이 두쪽으로 갈라진 하의를 착용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으므로 늘 사이드 새들(side saddle)에 올라탔다. 그녀들의 차림새를 정리해 보자면 베일을 느슨하게 드리운 남자형 모자에 칼라와 타이틀 매고 남성형 코우트와 웨이스트 코우트를 입고 풍성한 스커트를 받쳐 입었다. 사실 그 스커트는 너무나 풍성해서 말안장에 올라 탈 때는 그 자락이 모두 땅에 닿을 정도였고 (당시 빅토리아 여왕의 기마상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배우자의 도움 없이 말에서 내리기가 불가능할 정도였다. 이러한 풍성한 드레스의 목적은 착용자의 사회적 지위와 시종들을 거느릴 여유를 과시하는 것이었다.

1840년대의 기본적인 여성복 라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허리선은 낮고 몸통의 장식선은 낮은 허리선을 더욱 강조했다. 소매통은 타이트 하거나 팔굽아래는 부풀려 졌다. 스커트는 길고 풍성했으며 후크와 아이(hook & eye)를 이용한 여밈 처리를 한 몸통과 스커트가 붙은 원피스 스타일이 일반적이었으나 40년대 중반부터는 재킷과 스커트가 분리된 투피스 스타일이 가능해 졌다. 재킷 바디는 앞 단추가 죽 늘어선 몸에 밀착된 스타일이었다. 페티코우트는 몇 겹씩 겹쳐 입어 볼륨감을 창출했으며 이는 또한 보온효과(teacosy effect)를 위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그위에 말총으로 만든 작은 버스를 덧붙여 볼륨을 더했다. 스커트는 두세 배씩 주름 폭을 잡거나 루싱(ruching) 또는 기타 다른 장식을 풍성하게 덧붙였다. 복식 학자들은 보통 4 가지 타입으로 데이 드레스를 구분하는데(pelisse robe, redingote, round dress와 peignoir) 이들 복식은 서로 특징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며 40년대 말에 가서는 아침에 실내에서 착용하는 펠리스로브와 산책

시 착용하는 레딩고트의 형태는 서로 구별이 없어지기도 했다.

이브닝 드레스는 어깨를 드러내거나 가슴을 판 형태로 데콜레테 (decollete)라 불렸다. 꼭끼는 코사쥬 상의(corsage) 윗부분에 수평으로 가로지르는 주름 장식과 코사쥬 위에 레이스와 프릴로 장식한 널따란 버싸(bertha)는 대표적인 디테일이었다. 바디스의 몸체 앞부분은 아래로 향하여 포인트를 이루며 단단하게 틀이 지워져있었다. 데이 드레스용 옷감으로는 브로드클로스(broadcloth), 메리노(merino), 플라드(foulard), 오건디(organdie), 강염(gingham), 타탄(tartan) 등이, 이브닝 드레스 용으로는 샷 실크(shot silk)나 벨벳이 주로 사용되었다.

실외용 복식은 매우 다양했다. 쇼울이 다시 인기를 끌었는데 어떤 것은 사방을 술(fringe)로 두른 큰 폭을 자랑했으며 여왕이 거주하는 발모랄 성에 온갖 종류의 스코티쉬 페이즐리 쇼울을 모조리 모아다 놓은 걸 보면 페이즐리 쇼울은 더 이상 수입 캐시미어의 대체품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다양한 망토형 외투(cloak)도 개발되었는데 케이프나 소매가 달렸는지 또는 팔이 나오는 슬릿이 있는지 아니면 셋이 다 달렸는지에 따라 각각 캐서웍(casawecks), 폴카(polkas) 또는 파디쉬(pardessus) 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들 이름은 앞의 스타일에 영향을 준 동유럽 특히 헝가리의 의상을 연상시키는 명칭이었다.

아마도 작은 체구의 빅토리아 여왕을 존중해서인지 이시기에 여성의 룩은 가능한 한 작아보이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신발도 당연히 굽 없이 납작한 형으로서 슬리퍼 타입이거나 발목을 묶는 발레리나 슈즈가 일반적인 신발이었다. 발레리나 슈즈는 드레스 색깔에 맞추어 실크나 크레이프로 만들어졌다. 작은 발은 좋은 가문의 상징으로서 흠모의 대상이 되었다. 거리에는 옆에 늘어나는 고무를 덧댄 형질 부츠를 신고 다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으나 가문 좋은 집안의 여성들은 장거리를 걸어 다니려고 하지 않았다.⁷⁾

1850년까지 빅토리언 남녀 모드는 서로 조화로운 덩어리를 이루어나가고 있었다. 어느 누구도 이들 복식이 변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2) 1850-1860

콜셋과 크리놀린(corset, crinoline)

굵주린 40년대가 지나자 요란하고 풍요로운 50년대가 이어졌다. 1848년 대혁명으로 말미암아 참혹함이 유럽에 영향을 미쳤고 그 가운데서 몇몇 국가는 통치의 중심을 새로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영국과 프랑스에 있어서 그것은 부르주아의 승리였다.

1851년 영국에서 열린 대 박람회는 새로운 종류의 기술이 소개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그림 1> An embroidered picture taken from an 1848 Godey's Lady's Book fashion plate.

7) Laver, James. Costume and Fashion. Thames and Hudson. NY 1996. pp.172-176

우애의 시대가 시작되리라는 - 후에 그것은 잘못된 예측으로 판명되었지만 - 희망을 주었다. 무역과 상업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런던에는 정면에 두 기둥이 늘어선 현관이 있는 스타코 형의 수많은 집을 볼 수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1850년대에 지어졌다. 당시 런던 비즈니스 맨과 상인들은 돈이 풍족하여 쇼핑에 몰려 사는 런던에서의 생활을 접고 귀족적인 사우스 켄싱턴이나 벨그라비아로 은퇴하곤 했었다.

물질적으로 풍요해짐에 따라 의상은 정교함을 더해갔다. R.S. Surtees는 그의 소설 Ask Mamma, 1983에서 ‘가정부들은 과거 20년전 가족들이 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하게 옷을 짓고 이제는 선데이 드레스를 입고 일하는 여성을 보는 즐거움은 사라졌다.’ 라고 불평했다. 스커트는 더욱더 풍성하게 부풀려 졌고 반세기 동안 여성들은 페티코우트를 여러 겹 껴입음으로서 원하는 실루엣을 창출하였다. 결국 그 무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고 1856년 드디어 새장 모양으로 생긴 케이지 크리놀린(cage crinoline) 또는 후프형 페티코트가 등장하게 된다.

이것은 물론 처음으로 후프를 이용해서 치마 폭을 부풀리는 방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 수레바퀴형 파팅게일 (cartwheel farthingale)이나 바구니처럼 생긴 18세기 사이드 패니에(side pannier)등이 있었으나 테크놀러지의 발달 덕에 이 새로운 크리놀린은 보다 과학적인 장치로 개발 공급될 수 있었다. 즉 의복과 별도로 분리 가능한 탄성이 있는 철제 후프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테이프를 사용해서 허리에 매달거나 페티코우트에 박아 매달리게 했다.

크리놀린이 처음 개발되었을 때, 그것은 자유로움을 의미하는 기구 그 자체였다. 크리놀린 덕에 페티코우트를 무겁도록 겹겹이 껴입지 않고 스틸 케이지 (steel cage)안에서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1850년대 말에는 스커트를 받치는 크리놀린은 매우 거대해져서 두 여성이 동시에 문을 빠져나가기 힘들 지경이 되었고 넘쳐나는 장식 때문에 소파에 나란히 앉기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여성들은 이제 남성의 부드러운 에스코트를 받으며 자랑스럽게 항해하는 우아한 배와 같았다.

19 세기 중반은 남성 주도 문화의 시기로 그러한 가부장적 시기의 남성과 여성의 복식은 가능한 한 확연한 차이를 두고자 했다. 프록코우트와 탑햇 (frock coat, top hat)을 쓴 남성과 크리놀린을 입은 여성은 아마도 서로 다른 종족이었다. 그리고 크리놀린은 이 변창하는 시대를 대변하고 있었다. 즉 힙 사이즈를 확장함으로써 여성의 생산 능력을 암시하며 이는 곧 영아 사망률 감소에 따른 대 가족의 형성과 영국의 급격한 인구의 팽창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다.

또다른 의미로 크리놀린은 여성에 대한 근접 금지의 상징이기도 했다. 넓게 펼쳐진 스커트는 ‘네게 가까이 와서도 손에 키스를 해서도 안돼요’ 라고 하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물론 크게 확장된



<그림 2> A Windy Corner, 1864. The crinoline is now worn by every woman, and even by the little girl pushing the primitive perambulator.

스커트는 자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것 자체가 유혹의 도구이기도 했다. 크리놀린은 주변의 유혹과 선동을 끊임없이 담아내는 것이었다. 그것은 줄에 매어 들고 다니는 풍선과 같을지언정 단지 외형만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에스키모의 이글루 같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것은 이쪽저쪽으로 흔들리면서 위로 치솟기도 하고 앞뒤로 날리고 있었다. 한쪽의 스틸 후프는 고무줄로 다른 쪽과 연결되어 어떠한 부자연스런 압박감이 없었고 스커트가 위쪽을 향해 좁아지는 형태를 낳았다.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스커트 형태는 아마도 빅토리안 중기 남성들의 발목에 대한 콤플렉스를 자극했을 것이며 이는 곧 부츠가 새로운 패션으로 등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40년대 여성 구두를 살펴보자면 굽 없는 슬리퍼 형태로 까지 축소되었고 그나마 풍성한 스커트 밖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이제는 뒷굽에 정강이 까지 레이스 끈으로 엮는 부츠가 등장했다. 생산능력과 종속성 모성성을 은유하는 크리놀린은 이제 도덕적 복식이 아니라 상당한 발전을 이룩한 시대 즉, 전혀 도덕적이지 않은 프랑스 제 2 제정시대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pic 2)⁸⁾



<그림 3> Girls in crinoline dresses and pantaloons, 1853



<그림 4> Crinoline petticoat, c. 1860. The crinoline is circular in form and consists of eight hoops of flexible steel wire



<그림 5> Mrs Amelia Bloomer, c. 1850. Mrs Bloomer's very modest attempts to reform female dress met with a storm of hostility and ridicule

3) 1860-1870

버슬(bustle)

크리놀린은 이후 약간의 변형을 거치면서 약 15년간 지속되었다. 그 크기가 가장 확장된 시기는 1860년경으로 스커트는 별집처럼 퍼진 형태로 앞 뒤 좌우가 대칭을 이루었다. 허리는 잘록하고 바디스는 몸체에 밀착되었다. 외출 시에는 쇼울이나 작은 망토(mantalette)를 두르는 것이 관례였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일반적인 외양은 밑이 넓은 삼각형태가 되었으며 머리에는 되도록 작은 보닛(이제는 전보다 머리 뒤쪽으로 밀어 씌으로써 앞머리가 드러날 수 있게 된)을 씌으로써 전체

8) Laver, James. op.cit. pp.177-185

적인 삼각 형태를 강조했다. 1860년 중반이 지나면서 크리놀린은 앞과 옆 부분은 납작해지고 부푼 형태가 점차 뒷부분으로 밀리는 경향을 보였다.

1868년에는 더욱 큰 변화가 있어 스커트의 부피를 강조하는 보충 요소는 모두 뒤로 쏠리게 되었다. 크리놀린이 제거되는 60년대 후반에는 드레스 뒤편에 옷감 덩어리를 물리고 끝에는 트레인을 늘어뜨린 버슬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때를 풍미했던 크리놀린은 마치 바늘에 찔려 터진 풍선처럼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거리에는 보다 짧은 스커트(겉치마를 끈으로 들어 올려 안에 입을 치마를 드러나게 한)를 입은 젊은 여성들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이러한 스커트는 잠시 유행을 하는 듯하다가 스러졌고 70년대의 대표적인 스커트는 긴 트레인이 끌리는 긴 스커트였다.)



<그림 6> London and paris fashions for March 1869. The silhouette is now straight down the front and the crinoline is about to give Place to the bustle

4) 1870-1880

프린세스 버슬 드레스, 두채(princess bustle dress, scalpettes, frizzettes)

당대의 사가들은 1870년대 초기 드레스에서 과거 보다 단순해진 면모를 읽고 있지만 현재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아직도 충분히 볼륨있고 화려한 드레스임이 틀림없다. 이시기에는 두가지 중요한 진보가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는 미싱이고 다른 하나는 아닐린 염색의 도입이다. 이전 세대를 풍미했던 온화한 색상들은 온갖 종류의 밝고 강렬한 색상들로 대체되었다. 바디스와 스커트를 서로 다른 색상과 소재로 대비를 주는 것이 유행이었다. 한 바디 안에서도 무지와 패턴물을 섞어 트림 처리를 했다. 그 결과 때로는 패치워크 켈트와 같은 느낌을 주어 잡지 *The Young Englishwoman*(1876)의 한 필자는 ‘스커트는 도무지 알 수 없게 드레이프지고 장식과 자름선은 한 쪽으로 치우치고 여밈은 요상하게 고안되어 그것을 지칭하려면 어딘가 틀어박혀 그 모양이 어떤 것인지 한참을 고민해야 할 지경이니 이제 드레스를 정확하게 묘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불평했다.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닛은 이제 그 자리를 모자에 내주게 되었다. 그것은 이마위를 지나 요란스레 땀거나 곁을 지은 머리위로 날렵하게 올려졌다. 이렇듯 자신의 머리채만으로는 부족한 이 새로운 머리 패션을 위해 서구에서는 많은 머리털을 수입해서 원하는 scalpettes(두채)와 frizzettes(곱슬 머리채)를 연출해냈다. 따라서 당시 여성의 뒷머리와 버슬이 달린 드레스의 뒷모습은 신기하게도 매우 닳아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드레스는 두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프린세스 스타일의 원피스 드레스 이고

9) Laver, James. op.cit. pp.186-188

다른 한 종류는 상의와 스커트 부분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었다. 상의는 이전 세대로부터 입혀졌던 짧은 바스크(basque)와 스커트 위를 덮는 긴 바스크에 색상이나 소재 컨트라스트를 이루는 여유있게 흘러내리는 스커트를 입었다. 1874년의 상의는 갑옷의 형상과 유사한 인상을 주었는데 매우 타이트하고 힘까지 몰딩한 형태였다. 이러한 복식은 길고 타이트한 콜셋을 필요로 했으나 집에서까지 의상의 구속을 원하지 않는 여성은 부드러운 블라우스 상의를 입곤 했다. 소매도 일반적으로는 타이트한 형태를 유지했다. 스커트 위로는 양 옆에 다양한 방식의 드레이프를 흘러내리게 했으며 뒤로는 덩어리 진 버슬이 달리는 것이 보통이었다. 프렌체스 스타일도 종류가 다양했다. 가장 인기있는 것 중의 하나는 앞으로 단추가 죽 달린 폴로네즈(polonaise) 스타일 이었다.¹⁰⁾



<그림 7> Headdresses, 1870



<그림 8> Fashion plate from the Tailor and Cutter, c. 1870. A curious example of the practice at this period of sticking the heads of well-known people on a fashion plate.

4) 1880-1890

트레인(train)

1870년대 중반 이후 버슬은 사라졌다. 스커트의 뒷모습은 여전히 볼록한 형태를 유지했지만 부풀림은 과거보다 상당히 아래로 처진 모습이었으며 데이 드레스에 조차도 리스킨과 그 추종자들이 비위생적이라고 혐오했던 긴 트레인이 매달렸다. 스커트는 일상생활에 방해받을 만큼 거북스러운 형태였고 당시의 잡지 Punch는 너무 타이트한 드레스를 입어 앉을 수도 계단을 오를 수도 없는 여성들의 사진들은 연이어 게재하곤 했다. 허리는 잔인할 정도로 동여매고 콜셋을 입어 더욱 가늘어 보이도록 했으며 따라서 상체는 앞에서 보아 날카로운 역삼각형을 유지했다. 이러한 복식 조형은 1880년 초반까지 인기를 끌었다. 1880년대 중반 버슬 형의 복고 바람이 불었으나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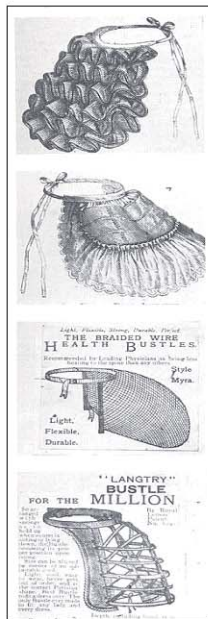
10) Barret, Michele. *Feminism and Class Politics*, 서울 여성사 1995. pp.120

형태는 이전 것과 차이가 있었다. 그것은 뒷 허리 부분에서 수평으로 불거져 나오도록 디자인되었으며 1870년대 초반에 사용되었던 것과 같은 말총 재료의 구조물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와이어로 열기설기 엮어 척추에 열을 덜 가게 하는 건강 버슬, 철제 밴드로 중심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Lantry' 버슬이 개발되었다. Lantry 버슬은 자리에 앉을 때는 올라가고 일어 서면 원위치로 돌아가게끔 디자인된 것으로 이는 패션의 역사를 돌아볼 때 매우 특이한 발명품의 하나라고 아니할 수 없다.

1880년대 복식 미학을 언급할 때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이성 복식 운동(Rational Dress movement)이다. 몇몇 지식인들은 추하다고 여겨지는 동시대 패션에 저항하는 뜻에서 라파엘 이전 스타일의 의상을 착용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차용한 양식은 패션의 라인을 따르되 느슨하고 소매통이 넓은 것이었으며 콜셋을 거부했다. 또한 뒷굽 없는 구두와 보다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을 차용했다. 잡지 편치는 이들 의상을 남성 미 드레스(male aesthetic dress)라고 풍자했다. 반바지에 벨벳 재킷, 타이틀 매고 넓은 챙 모자를 썼던 이러한 옷차림은 탐미주의자이자 이성 복식 운동을 후원하는 오스카 와일드가 미국 강연 여행에서 착용했던 옷차림이었다. 1881년에 조직된 이성 복식 운동은 당시 복식의 비건강성, 즉 코르셋을 사용한 지나친 압박, 과도한 레이어드, 패딩, 뼈대 심지(boning)에 저항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비록 당시에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으나 많은 여성들이 점차 활동적인 삶의 방식을 따르게 되고 견고한 코르셋이 패션에서 벗어나게 되자 결국 이 운동은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다.¹¹⁾



<그림 9> Evening and visiting dress, 1884. The extreme form of the second bustle built over a wire frame



<그림 10> Bustle advertisements. The horsehair bustles of the 1870s and the 'scientific' bustles of the 1880s. The 'Health Bustle' is recommended as being 'less heating to the spine than any others'. The 'Langtry' bustle folded up to allow the wearer to sit down and sprang into place again when she got up

11) Laver, James. op.cit. pp.194-203

5) 1890-1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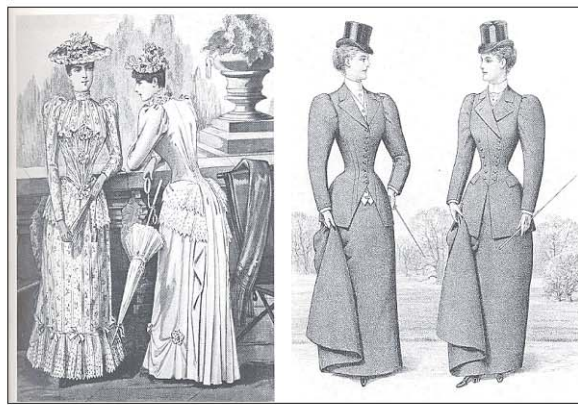
셔츠 웨이스트 드레스(shirtwaist dress), 스포츠 슈트(sport suit)의 등장

1880년대 여성의상을 특징 지웠던 수평 스커트 부착물과 함께 머슬은 결국 여성 의상에서 사라졌다. 드레스는 둔부위로 부드럽게 흘러져 내리고 가로로 재단된 치마자락은 보다 편안하게 인체에 맞게 되었다. 스커트는 긴 종형 모양이었으며 언체나 트레인을 뒤에 매달았다. 데이드레스는 목을 높여 루싱(ruching)이나 큰 리본으로 장식했다. 레이스를 많이 사용했으며 데이 블라우스에도 레이스 장식을 즐겨 사용했다. 이브닝 가운은 전체를 레이스로 만들어 진 것이 많았으며 페티코우트를 안에 받쳐 입기 시작함으로써 페티코우트는 당시 복식의 주요 요소로 부상했다. 한손으로 긴 치마자락을 붙들지 않고서는 길을 다니기 불가능 했으므로 레이스 프릴이 달린 페티코우트를 드러내는 이러한 자세는 당시의 특별한 성적 매혹으로 보여 진다. 1890년대 초반의 소매는 어깨 부분이 붕긋하게 솟고 아래는 좁다랗게 내려오는 형태였으나 1894년에 이르러서는 상당히 어깨가 풍성해졌으며 형태를 유지하기위한 쿠션이 필요할 정도가 되었다.

자전거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여성들은 트레인이 달린 스커트를 착용하고 자전거를 탈 수 없음에 따라 이원화된 복식의 착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가운데가 갈라진 스커트나 블루머라 불리는 배기형 니커보커 바지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었다. 그것은 1850년대 블루머 캠페인 이상의 흥분을 불러 일으켰다. 실로 야외 스포츠를 위한 보다 합리적인 복식에 대한 열정이 대중적으로 무르익었고 이에 따라 재킷, 셔츠와 셔츠 웨이스트 의상(shirtwaister)으로 구성된 여성용 테일러드 슈트가 등장했다. 특이한 것은 여성들이 외출할 때 남자들이 쓰는 실크 헬과 뺏뺏한 흰 깃을 함께 착용하길 주장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여성을 위한 스포츠 의상은 홈스펀이나 트위드를 재료로 하고 어두운 색상을 사용하여 무거운 인상을 주었다.



<그림 12> Cycling dress, March 1894



<그림 13> 좌, in the garden, 1891.
우, riding costume, February 189

1890년대를 통틀어 모자는 작고 머리 정수리에 가볍게 올라앉는 형상이었다. 야외용 의상은 맨

틀(mantle, 망토), 클로우크(cloak), 케이프등이 덧붙여졌는데 망토와 클로우크는 모양새나 길이에 변화가 있었으나 케이프는 망토나 클로우크 보다 짧고 어깨에 꼭 맞으며 허리까지 내려오는 형태를 유지했다. 초기의 맨틀은 귀까지 올라오는 메디치 칼라를 달았으며 와이어를 이용하여 그 형태를 유지했다. 많은 여성들이 남성적인 체스터필드와 7부 코우트를 즐겨 입었다.¹²⁾

2. 빅토리언 남성 복식 1840-1900

1) 프록코우트와 탑햇(frockcoat & tophat)

이시기의 일반적인 남성 복식은 이전 세대와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었다. 쉐어웨이 코우트(cut away coat)는 저녁 모임용으로 검정 실크로 앞 장식을 했다. 낮에는 프록 코우트가 대표적인 타운 웨어로서 자리매김했으며 힙 뒤로 커브 진 자락이 덮이고 앞가슴 위로 버튼을 채우는 모닝 코우트가 입혀졌다.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주변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짧은 자켓의 인기가 상승했다. 더블 브레스트 리퍼(reefer) 재킷도 특히 요트 탈 때 입혀졌다. 이시기에는 스포츠에 대한 열기가 두드러졌다. 온갖 종류의 새로운 스포츠가 선호되기 시작했으며 이를 포멀웨어를 입고 임한다는 것은 무리였다. 사냥할 때는 벨트와 가로 주름이 있는 Norfolk 재킷에 각반이 달린 바지(knee-breech)를 입었다. 이들 의상에는 주로 부드러운 펠트로 만들어진 모자를 착용했는데 때로는 훗날의 중절모자처럼 모자 크라운이 움푹 패인 경우가 있었다. 크리켓 경기를 위한 의상은 오늘날과 다를 바 없는데 다만 당시는 색깔 있는 셔츠를 허용하고 있었다. 강렬한 색상의 재킷이 유행을 타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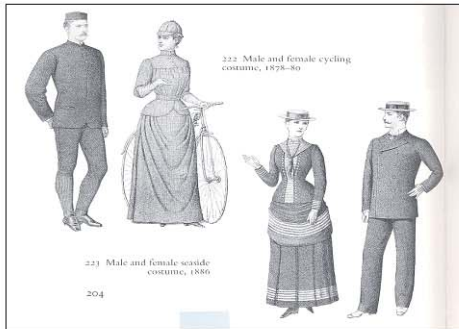
새로운 스포츠로 각광받기 시작한 사이클링을 위해서는 특별한 복식이 고안되었다. 즉 달라붙는 각반이 달린 바지에 아주 타이트한 밀리터리 형 상의에 작은 펠박스(pill box) 형 모자를 썼다. 또한 이들은 보행자에게 경고를 보내기 위해 나팔을 가지고 다녔다. 이 특이한 복식은 마찬가지로 사이클링이 유행했던 프랑스나 독일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당시 가장 유행한 오버코우트는 체스터필드(chesterfield)로서 처음에는 무릎길에서 시작되었으나 점차 길어졌으며 밀튼(milton), 소모(worsted), 체비웃(cheviot) 소재가 중심을 이루었고 색상은 검정, 브라운, 블루, 그레이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안단은 실크로 대었고 모서리는 브레이드로 마감했다. 탑 프록코우트는 그 아래에 입는 프록코우트와 거의 같은 모양으로서 보다 두터운 감으로 넉넉하게 재단되었다. 인버니스(inverness)와 얼스터(tulster)는 외투 위에 덧 붙여 입는 케이프 종류이다. 어깨 케이프가 달린 짧은 더블 브레스트 오버코우트는 글래드스톤(Gladstone) 오버코우트로 불리었는데 앨버트(Albert)라 불리는 반원형 케이프가 달린 것도 있었다. 저녁 모임에는 언체나 연미복이 기본이었으나 집안에서나 클럽에서의 저녁 식사시에는 디너 재킷이 점차 보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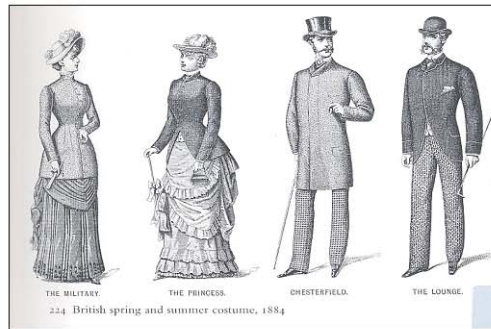
12) Tosh, John. What should historians do with masculinity? Reflections on 19th Century Britain. History Workshop Journal. 1994. pp.185-187

되었다. 여성들도 나이가 들면 스모킹 재킷의 착용이 허용되었다. 이것은 디너 재킷의 형태와 유사하나 반드시 누빔을 사용했다. 이는 아마도 당시 별장 안에 있는 흡연실이나 당구실이 난방이 되지 않았던 이유로 추측된다.

1880년대와 1890년대의 남성복식에서는 인포멀한 착장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다. 아직 하이드 파크의 교회에 갈 때 타운에서 프록코우트와 모닝코우트를 차려입지 않는 것은 점잖지 못한 차림으로 여겨졌다. 라운지 수트는 블루 서지 (serge)나 무늬지게 짜여진 트위드가 사용되었다. 이들 복식과 함께 화려한 웨이스트코우트를 입는 것이 허용되었는데 요란한 패턴물이 과감하게 소재로 사용되어 1890년 테일러 앤 커터(Tailor and Cutter)지는 ‘배 불뚝이 신사들이 색상과 패턴을 선택함에 있어 로맨틱하지 않은 부분에 눈길이 쏠리도록 계산된 결정을 하고있다.’라고 풍자했다. 1890년대 초기 바지형태는 peg-top(힙과 윗다리 부분이 볼록한 바지 형태)의 변형이었으며 도전적인 젊은이들은 턴업(turn-up, 접는 아랫단 바지, cuff)을 입기 시작했다. 타이(tie)와 보우(bow)는 여러면으로 변형 조정되었으며 기성품이 등장했다. 칼라의 높이는 10년 동안 계속 높아지다가 진짜 초커(choker)처럼 되었다.¹³⁾



<그림 14> Male and female cycling costume, 1878-80
Male and female seaside costume, 1886



<그림 15> British spring and summer costume, 1884

IV. 에드워드인 Edwardian 1900-1914

1. 에드워드왕과 그 시대적 배경

위대한 여성, 퀸 빅토리아는 죽었다. 런던 거리에는 ‘All right boys, the old woman has gone!’라고 시니컬한 구호가 나붙기도 했으나 유사 이래 한 죽음을 앞에 두고 이토록 전 국민이 오랫동안

13) Laver, James. op.cit. pp.172-211

깊이 슬퍼한 적이 없었다.

이어 아들 에드워드 7세가 즉위했다.

에드워드 국왕이 1901년 즉위해서 1910년에 서거했지만 영국에서는 20세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의 시기를 에드워드안 기라고 부른다. 물론 복식학자에 따라서는 오히려 에드워드왕이 서거하기 1년전인 1908년을 기점으로 S 커브가 사라지고 실루엣의 변형이 전폭적으로 이루어지므로 1901년에서 1908년까지를 에드워드안 복식으로 보기도 한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조금 앞당긴 1890년 중반에서 시작해서 전쟁 발발 전까지를 벨 에포크(la belle époque)라 부른다. 따라서 에드워드안과 벨에포크는 어느 지역에 초점을 맞추느냐하는데 따라 명칭이 달라지며 실제적으로 동시대의 유사문화로 생각할 수 있다. 양국 모두 당시의 분위기는 매우 유사한, 즉 화려함과 광시적인 걸치레의 시대였다. 영국에서는 언제나 일반 사회와 궁정이 서로 영향을 받아 오버랩되곤 했지만 이 시기는 특히 양측이 일치가 되었던 시기로 기록되었으며 에드워드 왕은 물론 그 모범이 되는 인물이었다. Virginia Cowles에 의하면 ‘왕은 도회인(city men)과 백만장자, 유태인 조크, 미국 여성과 국적과 출신을 가리지 않고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곧 군주의 비위를 맞출 수 있지만 하면 누구에게나 문호가 열려있다는 의미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엄격한 독일 출신 아버지 앨버트 공이 서거하자 황태자 시절부터 그에게 복수하듯 여자에 탐닉했는데 그의 귀족 친구들의 아내들 뿐 아니라 배우와 화려하고 애교 있는 파리의 여인들이 그 대상이 되었으며 그들을 통해 한창 절정에 올라 있는 아르누보 스타일을 섭취했다. 그는 파리 몰랭가 샤바네 보텔(Chabanais bordello at 6, rue des Moulins, Paris)의 후원자로 자처했으며 실제로 그 안에 많은 정부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는 업색 행각과 관련되어 두 번이나 법정 소송에 휘말렸다. 그는 거대한 식욕의 소유자였으며 유럽의 카지노를 휩쓸며 도박을 즐겼다. 한편 사냥을 즐긴 관계로 동시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테오도르 루즈벨트가 아기 곰 사냥을 거부해서 얻었던 ‘테디(Teddy)’라는 별명을 함께 얻기도 했다. 빅토리아 여왕 서거 직후 더 타임즈지는 왕위 계승자가 ‘저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자주 기도를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소용없는 일일 거라고 논평했다. 즉위 당시 그는 52세로 젊은 나이는 아니었으나 정력이 넘쳐났다.¹⁴⁾

2. 에드워드인 사회 문화적 특성

에드워드인 사회는 왕의 사적인 기호에 맞추어 스스로를 규격화한 시대였다. 모든 것이 크기가 크고 과다했으며 무도회와 디너파티와 별장 파티(country house party)가 난무했다. 어마어마한 돈이 의상비에 지출되었으며 넘치도록 많은 음식이 소비되었고 경마와 사냥이 더욱 성행하였고 경쟁적으로 요트를 즐기며 많은 혼외정사가 자행되었다. (Edward VII and His Circle, London 1956)

14) Hilier, Beris. The Style of the Century. Watson-Guption Publications. NY 1998. pp.22-25

반면 3천 3백만 명의 총 인구 중 소득세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백만 명 미만에 불과했다. 그러나 에드워드연기를 외설적인 부자들과 대책 없는 빈곤층의 대조라는 식의 이분법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중심가를 벗어난 지역에 위치한 상점 주인들과 소규모 사업가 계층이 착실하게 성장하기 시작한 시기로 기록된다.

또한 영예로운 에드워드안 코드는 엄격함이었다. 당시 연극에서는 법도와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용을 그린 것이 많았다. 꼭 다문 입, 짧게 치켜 깎은 머리, 뿔뿔하게 풀떡여 세워진 흰 것이 남성의 표상이었다. 이러한 코드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공립학교에 입학해서도 찬물 샤워와 회초리를 사용하여 주입식으로 엄격하게 교육되었고 속임수와 속덕공론은 금기로 알았다. 이러한 교육 풍토는 1907년 로버트 배든 파웰(Robert Baden Powell)에 의해 보이 스카우트가 결성되면서 더욱 힘을 얻었다. 남자들은 가슴이 넓은 이상적인 역삼각형 몸매와 남성다운 성품을 만들기 애를 썼으며 이러한 코드에 적응하지 못해 패배자로서의 자괴감에 고뇌하다가 목숨을 끊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기도 했다. 그 외 White Slavery(백인 매춘부, 백인 노예), 전쟁터에서의 비겁행위, 카드게임에서의 속임수 등은 죽어도 시원치 않을 치욕으로 여겼다. 한편 남성다운 영예로움의 추구는 여성 선거권을 주장하는 캠페인에 우호적으로 작용하여 그 불을 지폈다. 여성의 선거권은 당시 바로 취득되지는 않았지만 1차 세계대전 즈음 결실을 보게 된다. 당시 여성 작가들은 남성의 필명을 사용하여 기고하거나 이름을 이니셜을 사용하여 성별 구분이 힘들도록 했다. 당시의 신여성(New Woman)은 담배를 피우거나 니키보커 차림으로 자전거를 타거나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자기차를 손볼 수 있는 여성들로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언론도 점점 더 남성 주도적 면모를 보여주었는데 특히 데일리 메일(Daily Mail), 데일리 익스프레스(Daily Express), 등 당시 주도적인 언론들은 타협을 거부하고 강경한 필치로 일관하였다. 이렇듯 남성주도적 문화는 1890년대 데카당스의 영향을 받은 장식 미술에 거부감을 보였다. ‘마가린 녹은것’과 같다는 힐난을 받으면서 초반의 곡선적 아르누보(Curvilinear Art Nouveau)는 1900년 이후로 넘어가면서 클래스고우 학파, Charles Rennie Mackintosh를 중심으로 한 직선적 아르누보(Rectilinear Art Nouveau)로 대체되었다.

새로운 세기가 개막되면서 1차 세계 대전을 겪기 전까지의 기간은 혁신의 시대였다. 미래 세계를 결정짓는 엄청난 과학적 진보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한편 종말의 조짐이기도 했다.

1900년 프로이드는 예술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저서 꿈의 해석‘The Interpretation of Dream’을 출판했다. 인간 행위의 본능적 측면을 강조한 그의 이론은 예술가들로 하여금 본 것보다 느낌을 표현하도록 유도했다. 즉 호랑이를 그릴 경우 호랑이의 질적 표현, 즉 호랑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감정 따위가 그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Franz Marc, Blaue Reiter group)

1902년 영국 물리학자 Kelvin 경에 의해 원자의 초기 모델이 제안되고 J.J.Thomson에 의해 강력 추천된 탓에 톰슨 원자라 불리웠으며 후에 Frederick Soddy와 Ernest Rutherford가 현대 방사능 이론을 창시했다. 1902년 그들은 원자는 불변하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것 역시 과학이 예술에 영향

을 미친 사례로 기록된다. 1905년에는 아인슈타인의 역사적인 4개의 논문 출판이 이루어졌다.¹⁵⁾ 이어 소위 말하는 자동차의 세계를 향한 뚜렷한 진보가 이루어졌다. 모터카는 이제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 성숙기로 접어들었다. 첫 롤스로이스 Silver Ghost가 1907년 선을 보였고 포드의 모델 T는 처음으로 대량생산된 차로서 포드 자동차 왕국의 탄생을 예고했다. 최초의 자동차 등록은 영국에서 이루어졌고 당시자는 자동차 광인 에드워드 왕이었다. 런던 거리에 최초의 모터 택시 캡이 소개된 것은 1903년이었는데 1910년에는 이미 5000대에 이르는 마차 택시의 숫자를 넘어서 6300대에 이르게 되었다.

전화기, 타이프라이터, 무선통신, 축음기, 전기 주전자등이 모두 에드워드안 기간에 영국 또는 영국과 밀접하게 교류하는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개발되었다. 1903년 비행기가 발명된 이래 1909년에는 영국과 프랑스, 미국과 영국을 성공적으로 시험 비행했다. 1912년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사고도 있었지만 선박도 더욱 더 거대해지고 속도가 붙었다. 또한 에드워드안 시대의 대중 교통 수단도 말에서 자전거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이른바 자전거 시대(the Bicycle age)였던 것이다. 여성들은 남자들처럼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시골길을 누볐다.

V. 에드워드인 복식

1. 여성복

1) S 타입, 파스텔 레이스와 테일러 메이드(S-type, pastel, lace, tailor-made) (1901-1910)

1901년 에드워드 왕이 즉위하자 비로소 여성들은 패션에 보다 자유로움을 추구했다. 극도로 여성스러운 레이스, 피죠행 드레스(pigeon-fronted dress)등이 등장하고 뒤이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늘하늘한 스타일이 등장하여 의상의 모더니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1920년대 까지 이어지게 된다.

패션은 언제나 시대를 반영한다. 에드워드왕은 성숙하고 냉정하며 그러나 가슴이 풍만한 여성을 선호했던 관계로 여성들은 소위 건강 코르셋을 사용해서 그러한 효과를 더욱 강조하고자했다.

건강 코르셋은 복부에 가해지는 압박을 피하고자 가슴을 위로 들리우고 엉덩이를 뒤로 빼게하여 신체의 전면을 견고한 직선형으로 세우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특이한 S-타입의 자세는 곧 당대를 특징짓는 대표적인 의상 스타일로 규정된다. 스커트는 힙 위로 부드럽게 흘러내려 아래로 퍼져나간 종형(bell shape)을 이루었다. 상의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레이스의 물결 - 실로 당시는 드레스 가운 어디에나 레이스를 열정적으로 장식했다. 진품 레이스를 구하지 못하는 계층에게는 아이리쉬 크로체가 대용품이 되었다. 머리는 위로 높이 틀어 올린 후 납작한 팬케이크 형 모자를 스커트의 트레인과 밸런스를 맞추어 머리위에 꽂았다. 저녁 모임을

위한 드레스는 극도로 사치스럽고 어깨와 목을 드러낸 스타일(decollete)이었으나 낮에는 귀 아래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몸을 가린 스타일로서 작은 레이스 칼라는 심지를 대어 형태를 잡았으며 양팔은 긴 장갑을 끼어 완전히 커버했다. 새털 장식도 인기가 대단하여 모자에 깃털 꽃이로 장식하거나 보아 목도리로 만들어 목에 걸고 다니곤 했다. 보아 목도리 중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타조 깃털로 만든 것으로 한창 때는 10 기니의 값을 치러야만 했다.

이 즈음 유럽의 기후는 세기 초에 비해 상당히 온화한 이상 기후를 보였기 때문에 이 시기의 많은 의상들은 마치 리비에라 카지노나 가든파티를 위해 디자인된 의상처럼 보였다. 겨울에는 많은 사람들이 몬테 카를로나 지중해의 휴양지로 떠나고 몰려가곤 했다. 정치적 협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던 간에 영국 상류사회의 삶은 평온했고 영국과 프랑스를 동지로 생각하면서 양국이 즐거움에 대한 근본적인 느낌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왕의 표본을 다시 한번 따르고 있었다. ‘상류사회의 마지막 호시절’로 규정되는 이 시기는 의상의 색채마저도 돈이 넘쳐나는 햇빛 찬란한 낙관성을 드러내 보여준다. 핑크, 페일블루(pale blue), 모브(mauve)로 이어지는 파스텔 계열, 작은 세련으로 뒤덮여 반짝이는 블랙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선호된 소재는 CDC, 시폰, 실크 머슬린, 망사 등이다. 새틴 드레스에는 작은 리본을 문쳐 만든 꽃문양으로 장식하거나 핸드 프린팅을 그려 넣는 등 멋지고 세련된 드레스 가운데 하나 만드는데 엄청난 공을 들였다.

블라우스는 극도의 공을 들이는 품목이 되어 주름 장식(tucking)과 삽입 장식(inserting)으로 정교하게 꾸며졌다. 당시 패션 잡지에 한 기고자가 쓴 글을 보면 ‘어떤 블라우스는 세로 주름으로 세공한 머슬린을 사용한 둥근 트리밍에 곱고 우아한 곡선을 넣었는데 그 장식은 매우 복잡하기 이를 데 없었다.’ 라고 묘사했다. 이튼스쿨 남학생들의 재킷과 닮았다고 해서 이튼 바디스(Eaton bodice)라 불리기도 했던 볼레로(bolero)도 매우 인기가 높은 의류 품목이었다. 1890년대의 부푼(balloon) 소매는 이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손목까지 타이트하게 내려오는 스타일로 바뀌었으며 길이는 손등의 절반정도를 가릴 만큼 길어졌다. 편안하게 걸치기 위한 목적으로 생겨났던 티가운은 이제 하나의 예술적 창조물로서 인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당시의 특기할 만한 것 하나를 들자면, 바로 테일러 메이드(tailor-made)의 중요성이다. 중류 계층의 많은 여성들이 이미 집사, 타이피스트, 판매원등의 직업을 갖고 근무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이들이 앞서 얘기한 가든파티용 드레스를 입고 직장 근무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유복한 여성들조차도 전원이나 여행지에서는 테일러 메이드를 입게 됨에 따라 영국의 양복업자들은 세계 최고의 명성을 드높이는 값진 수확을 얻게 되었다. 영국과 프랑스 간에 역사적인 라이벌 의식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영국의 테일러가 파리에 매장을 열고 파리의 패션하우스가 런던에 매장을 오픈하는 등 교류가 잦아졌다. 찰스 포인터 레드펀(Charles Poynter Redfern)은 영국식 테일러링의 뛰어난 것과 파리의 세련미를 절묘하게 접목시켜 표현해내었다. 그는 잦은 공식 행사에 적합한 보다 간소한 의상을 찾던 황태자비에게 최초로 테일러드 수트를 입힘으로서 활동복을 파급시키는 데 기여했고, 이어 패션 지향적인 여성 계층의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여성복 테일러드

수트에서 보여지는 침착한 우아함은 이후로 여성복의 주요한 미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¹⁵⁾



<그림 16> Straight-fronted corset, February 1902



<그림 17> Chiffon dress, 1901



<그림 18> Evening dress, September 1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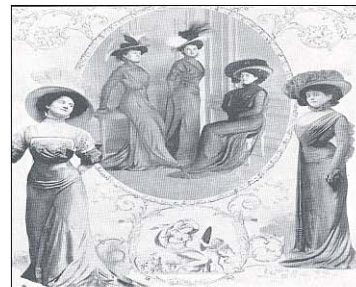


<그림 19> Day dress, 1907

2) 엠파이어 스타일(Empire Style) (1910-1914)

여성복 실루엣은 1908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버스트는 더 이상 앞으로 심하게 밀려나오지 않았으며 힙도 뒤로 심하게 빠지지 않았다. 팔랑거리는 블라우스는 느슨하게 허리로 내려뜨렸다. 나폴레옹 1세 당시의 스타일과 많이 유사하지는 않지만 당시 유행하던 엠파이어 가운은 좁은 힙이 강조된 스타일이었다. 이는 코르셋 광고가 판치던 당시 어찌 보면 매우 소박한 스타일이었다. 모자는 점점 더 넓어졌고 이는 곧 힙이 작아보이게 하는 효과를 창출했다.

그리고 1910년, 드디어 여성복의 근본 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무엇이 이토록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했느냐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러시아 발레와 디자이너 폴 푸아레와 연관이 있어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확실한 것은 셰헤라자드(Scheherazade)의 공연에서 레옹 박스트(Leon Bakst)가 디자인한 무대의상이 가지고온 오리엔탈리즘의 물결이 유럽 전역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충격적이고 화려한 색감에 유럽 사회는 열광했으며 기존의 창백한 핑크와 몽상적인 연보라 색조는 단숨에 사라져 버렸고 견고한 바디스와 벨 모양의 스커트도 부드러운 드레이퍼리에 자리를 내주어야만 했다. 그리고 역사가들은 이를 더 이상 빅토리언 스타일이거나 에드워드인 스타일 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림 20> Dress of 1908. The period of the 'Gibson Girl', with heavy bust and swirling skirt, created by the artist Charles Dana Gibson. She was based on the beautiful Langhorne sisters, one of whom Gibson married

15) Hilier, Beris. The Style of the Century. Watson-Guption Publications. NY 1998. pp.22-25.



<그림 21> walking dress, 1910



<그림 22> The new silhouette, still heavy above but tapering towards the feet, seen at race meetings in 1914

2. 에드워드인 남성복 (1901-1914)

1) 스포츠 수트, 테일러 메이드(Sports Suit, Tailor-made)

남성 패션은 여성의 그것처럼 구조적으로나 형태적으로 빠르게 변화하지 않는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즉 에드워드인 기에 비로소 남성복 패션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세기말 재킷과 바지, 웨이스트 코우트와 타이로 이루어진 착장법은 20세기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다.

남성들에게 어느 공식적 행사에나 두루 적용될 수 있는 복장은 아직도 top hat에 프록코우트지만, 홈버그 헬(homburg hat, 황태자가 자주 방문한 독일 스파에서 명칭 유래)에 라운지 수트 차림이 점차 일반화되었다. 밀짚 모자(straw hat)도 매우 유행해서 승마용 반바지에 함께 착용하기까지 했는데 이때 바지는 점차 아래가 좁고 타이트해졌으며 젊은이들은 접는 바지 단(permanent turn-up)에 앞 다리미 선(sharp crease)을 넣어 입기 시작하여 1890년 중반 이후로 바지 다림선이 남성 바지의 주요한 특징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흰 리넨에 뿔뿔하게 풀 먹인 것은 점점 더 높아져 목을 쳐 올리듯 둘레를 감쌌는데 이는 동 시대 여성복식에서 보여준 심지 넣은 네크(boned neck)와 케를 같이한다.

남성 신사복은 프랑스 앙시앵 레짐 붕괴 당시 런던의 사빌 로우(Savile Row)에서 그 완성을 보았다. 도심과 교외의 장원을 오가며 사냥과 여행, 여유로운 삶의 태도를 즐기던 앵글로색슨 사회는 다른 유럽 국가에 또 다른 삶의 방식을 가르쳐 줄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 자유주의 물결이 파고를 높여감에 따라 18세기 영국 신사들은 프랑스 귀족들에게는 아직 허용되지 않았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넓은 영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보편화되었으며 따라서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은 에드워드인 남성

복식 체계를 정립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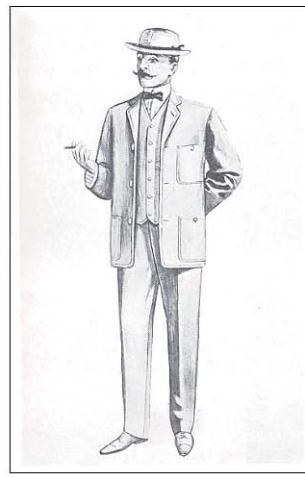
남성 복식은 영국 모직 산업의 발달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유럽 전역에 영국 남성복에 열광하는 앵글로메니아가 생겨났으며 2세기에 걸쳐 완성되어온 남성 의상에 관한 명칭과 관례가 정립되었다. 그것은 과거 보다 훨씬 단순하고 길 것으로 보기에 민주적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서 민주주의를 발달시킨 선두주자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었다. 남성 복식은 입는 이의 개성을 드러냈으며 많은 이들이 차림새에 신경을 쓴 관계로 당시 의류와 섬유 산업은 생산량과 질을 통해 이를 반영하고 있었다. 테일러는 익명의 장인에서 사회의 중심인물로 부상했다. 낭만적인 문학 작품에서는 젊은이가 옷을 맞추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인생의 우선적이고도 중요한 일로 묘사되었다.¹⁶⁾



<그림 23> male summer costume, July 1907



<그림 24> Flannel suit for boating, July 1902



<그림 25> Male motoring costume, c. 1904

빅토리안 시대에 선보였던 세일러 재킷 팔레토(paletot)는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가지 않고 어깨에서 힙까지 박스형으로 내려오는 것으로서 이미 대량 생산 방식으로 생산되기 시작했다. 피 재킷(pea-jacket)이라고도 불리는 이 의상은 생산이 쉽고 모양과 사이즈 적응이 용이하여 개별 재단이 필요치 않았다. 이는 즉 대량 생산의 선두 주자로서 기성복의 시대의 도래를 암시하고 있었다. 본디 노동자 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기성복은 곧 부르주아 계층에게도 어필하게 되었다. 근대의 새로운 위상은 속도였고 의류 구매 및 생산을 포함한 모든 것은 가능한 한 빠른 것을 지향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도 영국 남성들은 역시 분별 있고 남성적인 신사도를 지켜나가는 기조를 확고히 했다. 자제력, 차림새, 여성을 우선하는 배려, 과묵함이 그들을 돋보이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었으며 이러한 기조는 복식 조형을 통해 면면히 드러나고 있었다.

16) Laver, James. op.cit. pp.213-228

VI. 결론 및 요약

빅토리언과 에드워드인 스타일을 대등한 비중으로 비교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선 재임기간이 60여년과 10여년이라는 물리적 양의 차이를 간과할 수 없으며 더구나 에드워드왕은 50여년의 황태자 시절을 빅토리아 여왕 슬하에서 보냈고 특히 만년의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는 왕실에 대한 영국민들의 초점이 황태자에게로 많이 이동하는 등 이미 서로 간에 영향력을 주고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문화 연구에서 이들 두 시대를 차별화시키기보다 한 흐름으로 묶어 파악하는 경우를 흔히 접할 수 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양 시대에는 동질적 요소와 함께 이질적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며 이들 요소는 문화와 복식 흐름에 각각 차별적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파악한 양시대의 동질적 요소와 이질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동질적 요소

*모더니티와 산업주의가 결합하여 모든 면에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것을 추구했으며 부르주아 계급의 가치가 사회 권력의 핵으로 등장했다.

*남성성과 여성성을 구분하여 부르주아 사회가 요구하는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유도 하는 이분법적 성별체계는 빅토리언과 에드워드인 양시대에 걸쳐 공히 적용된 성 담론으로서 지배하는 남성상과 종속적인 여성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스타일의 흐름 가운데서도 지배적인 구조를 유지했다.

이질적 요소

*빅토리언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확고한 유럽의 중심 위치를 지키고 있었으나 에드워드인 안으로 접어들면서 문화의 중심지가 벨에포크가 상징하듯 파리로 이동되었으며 군주의 취향도 파리 문화를 흡수하는데 거부감이 없어 독특한 영국식 조형 스타일을 고수한 빅토리언과는 달리 양국의 문화적 특성이 혼합되는 양상을 보였다.

*빅토리언은 엄숙주의, 금욕, 은폐의 이미지가 강한 반면 에드워드인은 풍요, 낙관성, 개방, 노출, 스포티의 이미지가 두드러졌다.

전술한 동질적 요소와 이질적 요소가 차별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양 시대의 의상 스타일의 특성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빅토리언과 에드워드인 스타일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양 시대는 비록 그 캐릭터는 다름지언정 군주의 사적인 기호에 맞추어 규격화된 시대였으며 본인이 원하였던 원치 않았던 간에 이들은 당시의 패션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내었다.

빅토리아 여왕의 외모에서 오는 이미지, 연령, 성장과정, 성품 등의 영향으로 작은 체형, 낮은굽, 작은 발, 소녀취향의 드레스, 성숙미, 엄숙주의 등의 성향을 띄게 되었으며 빅토리아 말기에 소개된 유미주의 복식 경향은 에드워드왕 개인의 미적 취향과 맞물려 에드워드인 시대에 더욱 발화하였다.

둘째, 빅토리아는 이분법적 여성성과 관련된 여성 외모 중시 경향으로 여성복의 다양한 스타일 개발이 이루어지고 구조적으로나 형태적으로 많은 변화를 보였으나 18세기 말에 확립된 재킷과 바지, 웨이스트 코우트와 타이로 이루어진 남성복 착장법은 이전세대와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에드워드인 시대에 이르러 남성복은 스포츠 룩, 테일러 메이드의 완성과 함께 근대 남성복 스타일과 제조방식의 체계가 확립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표 1> 빅토리아 스타일과 에드워드인 스타일의 특성 비교

		빅토리아 스타일	에드워드인 스타일
여 성 복	실루엣	Hourglass	S-curve
	소재	day: broadcloth, merino, goulard, organdie gingham, tartan evening: shot silk, velvet	crepe de chine, chiffon, lace silk muslin, tulle
	색상	어둡고 목직함 침잠된 색상 온화하고 바랜듯한 자연 색조 brown, gray, navy	밝고 환한 파스텔 계열 pink, pale blue, mauve
	품목	pelisse robe, redingote, round dress, decollete, shawl, cloak, 콜셋, 페티코우트, 크리놀린, 버 슬, 트레인 티가운, 레이스 캡	bell shape skirt, blouse, bolero 테일러메이드 드레스 lacy pigeon front dress
	기법	ruching, trim, inverting, drapery	taylor-made, boned neck, lace cascade
남 성 복	품목	frock coat, top hat cut away coat, morning coat, reefer coat, waist coat, chesterfield	스포츠 수트, palettot(pea-jacket) 근대식 코우트와 수트
	디테일	peg-top(pants)	tum-up, sharp crease(pants) white starched collar
	소재	milton, worsted, cheviot, serge, tweed	milton, worsted, cheviot, serge, tweed, flannel,

즉 페티코우트-크리놀린-버슬-트레인으로 이어지는 빅토리아인 관능과 집근 금지, 확장과 종속, 모성과 유혹이라는 이중적 코드를 지닌 여성성을 은유하는 여성복의 시대였다면 에드워드인은 가부장적 남성주도의 지배문화가 엄격한 신사도로 승화된 남성성을 은유하는 남성복의 시대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이는 두 군주의 패션리더적 역할과 무관하지 않다.

(접수: 2004년 1월 26일)

【참 고 문 헌】

- Kristina Harris. Victorian & Edwardian Fashions for Woman. schiffer Publishing Ltd. PA, 1995
- Baudot, Francois. Fashion, The Twentieth Century, 1999. Universe Publishing NY
- Hilier, Beris. The Style of the Century. Watson-Guptil Publications. NY 1998
- Laver, James. Costume and Fashion. Thames and Hudson. NY 1996
- Peacock, J. 20th Century Fashion: The complete Sourcebook. London and NY 1994
- Polhemus, T. Streetstyle. London and NY 1994
- Boucher, P.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London 1967
- 서지문, 19세기 영국 여성작가들의 자전적 소설, 또하나의 문화 제 9호 1992.
- 김정선. 빅토리아 시대 유행 복식과 반유행 복식운동에 나타난 여성성과 인체미에 대한 연구. 서울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6
- Barret, Michele. Feminism and Class Politics, 서울 여성사 1995.
- Chodorow, Nancy. Feminism and Psychoanalytic Theory. Yale University Press. 1989
- Tosh, John. What should historians do with masculinity? Reflections on 19th Century Britain. History Workshop Journal. 1994.

A Comparison Study on Victorian & Edwardian Costume Style

Kookmin University, Fashion Design Dept. Professor **Lee, Jae-Jung**

Victorian and Edwardian style has revived these days as in-style as one of the major retro phenomenon.

It need to be clarified the concept of Victorian & Edwardian era which has lots of similarity and difference each other. For the purpose of it, their historical back ground, sociocultural factors and stylistic characteristics should be understood first. And this paper is intended to examine the divided gender system and taste of monarch whether can influence the trend. On the basis of these, this paper focused on grasp the change of their costume style and compare the differences.

Following are the conclusion.

*The society of those two periods are samely modelled itself to suit the monarch's personal demands and Queen or King took the role of the fashion leader.

*Victorian intensify to develop the women's apparel by taking a serious view of appearance rather than men's by being divided in two gender system.

*But, men's wear in Edwardian era established modern men's wear system and English tailor-made reaped the rich harvest as world's best.

*If we can define as Victorian was the era of woman's apparel but Edwardian was the era of men's apparel, those definition can be related to monarch's role as a fashion leader.

Key words : Victorian, Edwardian, monarch's role as a fashion leader